

올해 달라진 약대 선발, 특징에 맞게 대비해야

출처 : 에듀동아

전국 37개 약학대학은 그동안 2+4 체제로 학생들을 선발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3개 이상의 대학이 6년제 학부선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렇듯 올해 약학대학의 대입에는 여러 변화가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와 함께 약대를 희망하는 수험생을 위해 2022학년도 약대 선발 특징을 소개한다.

○ 약대 가려면 정시 보다는 수시 준비가 중요?

2022학년도 33개 대학이 밝힌 약학대학 모집인원은 총 1553명(정원 내, 이하 동일)이다. 이 중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841명으로 전체의 54.2%로 절반 이상이다. 다만, 수시 미등록 인원을 고려하면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많은 대학의 수시 전형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비교적 높이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411명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다. 하지만 이 중 163명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다. 따라서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유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총 선발인원 376명 중 58명만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경희대 등 6개 대학은 논술전형으로도 선발하지만 모집인원은 총 54명으로 낮은 인원이다.

[표]2022학년도 지역/전형별 약학대학 선발인원

지역	수시				정시				계
	교과	종합	논술	수시계	가	나	다	정시계	
경기	18	59	6	83	24	28	15	67	150
경남	29	7	0	36	24	0	0	24	60
경북	67	5	0	72	0	48	0	48	120
광주	69	19	0	88	24	23	0	47	135
대구	30	15	0	45	10	0	5	15	60
부산	30	0	0	30	20	0	0	20	50
서울	56	195	33	284	152	190	12	354	638
세종	11	0	10	21	0	9	0	9	30
인천	9	19	5	33	27	0	0	27	60
전남	9	3	0	12	0	0	18	18	30
전북	47	32	0	79	0	31	0	31	110
제주	20	0	0	20	0	0	10	10	30
충남	0	8	0	8	22	0	0	22	30
충북	16	14	0	30	20	0	0	20	50
계	411	376	54	841	323	329	60	712	1,553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대학도 존재?

학생부교과전형 중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와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단 두개 전형만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두 전형은 단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동국대는 서류평가, 연세대는 면접평가를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도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이 많이 존재한다. 단, △경상대 △덕성여대 △동국대 등 10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중 일부 전형에서는 최저기준을 두지 않고 논술전형에서는 연세대만 최저 기준 없이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 기억하자.

[표]2022학년도 서울지역 약학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전형명	종합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국어, 수학(미/기), 영어, 과탐(1) 중 2개 합 5등급 이내 및 한국사 5등급 이내
	논술우수자	
덕성여대	학생부100%	국어, 수학(미/기), 영어, 과탐(2) 중 수학 포함 3개 합 6등급 이내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
동덕여대	학생부교과우수자	국어, 수학(미/기), 과탐(2) 중 2개 합 4등급 이내
삼육대	일반	국어, 수학(미/기/확), 영어, 사/과탐(1) 중 3개 합 5등급 이내
	학생부교과우수자	
	재림교회목회자추천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국어, 수학(미/기), 영어, 과탐(2) 중 3개 영역 2등급 이내
성균관대	논술우수자	수학(미/기), 과탐(1) 2개 합 3등급 이내 및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
이화여대	미래인재-약학전공	국어, 수학(미/기), 영어, 과탐(1) 중 4개 합 5등급 이내
	미래인재-미래산업약학	국어, 수학(미/기/확), 영어, 사/과탐(1) 중 4개 합 5등급 이내
중앙대	지역균형전형	국어, 수학(미/기), 영어, 과탐(2) 중 4개 합 5등급 이내
	논술	국어, 수학(미/기), 영어, 과탐(2) 중 4개 합 5등급 이내

○ '약학과'와 '제약학과'의 차이는 무엇?

계명대와 충북대는 약학과와 제약학과를 구분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어떤 학과에 지원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두 학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거의 동일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두 학과 모두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졸업 후 진로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화여대는 약학전공과 미래 산업약학전공으로 나누어 선발을 한다. 미래 산업약학전공 역시 약사면허 취득 자격이 생기지만 두 전공의 교육과정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해당 전공은 약학교육 토대위에 글로벌 융복합 교육을 추구한다. 즉, 약학전공 교과목 외에도 △경영 △심리 △마케팅 관련 과목을 수강하게 되며 인문계학생들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정시 선발인원이 많은 대학은?

정시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이화여대로 나군에서 약학전공 70명과 미래 산업약학전공 20명으로 총 90명을 정시 선발한다. 그 다음은 △중앙대 70명 △숙명여대 65명 △덕성여대 40명 △성균관대 30명 순으로 서울권역 대학의 약학대학 선발인원이 많다.

반면 △경북대(5명) △고려대(세종, 9명) △전북대(9명)는 10명 미만의 인원을 정시 선발한다. 선발 군별 모집인원을 비교하면 △가군 323명 △나군 329명 △다군 60명으로 다군 선발대학인 △계명대 △삼육대 △순천대 △아주대 △제주대 약학대학의 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약대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능이 중요하다”며 “수시 선발인원이 더 많지만 수시에서도 대부분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게을리 대비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